

9가지 무동력 레저자원 네트워크...세계 7대 자전거길 거점

〈스위스 모빌리티〉

〈일본 오노미치 U2〉

전남도 서남해안 경관색깔 어디를 모델로 어떻게 조성하나

서남해안 경관 색깔은 다도해와 리아스식 해안이 어우러진 명품 건강 여행 코스로 조성된다. 사업비가 9592억원이 드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스위스·일본 등에서 벤치마킹했다.

◇미국 경관도로=미국 연방도로청이 1991년 'NSBP' (The National Scenic Byway Program·국가 경관도로 프로그램)를 설립, 경관도로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수많은 도로 가운데 고고학, 문화, 역사, 자연, 경관, 레크리에이션 등 6가지 기준 요소를 충족한 도로를 지정한다. 6가지 요소 중 1가지만 충족하면 'National Scenic Byway', 2개 이상 충족하면 'All-American Road'로 선정한다. 현재 46개주 120개 도로가 'National Scenic Byway'로, 31개 도로가 'All-American Road'로 지정, 관리 중이다.

◇스위스 모빌리티= 걷기와 자전거, 카누, 카약, 스케이팅, 스키 등 9가지 친환경 레저관광자원을 네트워크한 시스템이다. 무동력 인간의 힘으로만 즐기는 느리고 건강한 여행을 표방하고 있다.

1993년 자전거를 시작으로 1998년 걷기·산악자전거·스케이팅·카누 등 무동력 운송수단이 추가, 다양한 루트가 조성됐다. 2008년 스위스 정부가 스위스 모빌리티를 공식 프로젝트로 운영하고 있다.

각 루트는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연결했다. 루트를 따라 표준화된 표지판 설치하고 레스토랑이나 산 오두막 등 휴게시설을 조성했다. 체계적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맞춤 숙박, 짐 운반, 자전거 대여 등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아일랜드 '타이디 타운' = 국가가 추진하는 청소 캠페인으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위한 농촌 가꾸기 경진대회다. '너의

공간을 더욱 더 좋게 만들자'는 의미다. 1958년부터 매년 9월 실시하고 있다. 첫 해 52개 마을로 시작해 지금은 평균 700개 마을이 참가하고 있다. 지역 쓰레기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시작했다.

◇일본 '오노미치 U2' = 쓸모 없어진 해운창고를 사이클리스트(자전거 동호인)를 위한 복합시설로 재탄생한 곳이다. 일본 히로시마현 오노미치시 이토사키 항구에 있으며, 세계 7대 자전거도로 중 하나인 세토우치 시마나미 해안도로와 연계한 자전거 거점시설이다.

히로시마현이 소유하고 오노미치시가 수탁 관리하던 창고를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새로운 거점으로 재개발했다. 소박함 속의 세련됨을 디자인 콘셉트로 사이클리스트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는 호텔, 자전거 브랜드 숍, 오픈키친 레스토랑, 카페 등이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1일 오후 나주 다시민 영산강 죽산보의 수문이 개방됐다. 2개의 수문에서 쏟아져 나온 물이 흰 거품을 내며 하류로 흐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일본 '오노미치 U2'



스위스 모빌리티

사업 지시 MB, 직권남용 등 위법성 판단 못해 '녹조 라떼' 정확한 원인 못 밝혀 쟁점 해소 안돼

4대강 4번째 감사...남은 과제는

감사원이 4일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4대강과 관련한 '마지막 감사'가 되길 원했던 만큼 이명박(MB)정부 시절 장·차관과 대통령실 직원 등 90명을 문답 조사하고, 외부기관에 성과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감사보고서는 무려 2천500쪽에 달했다.

앞서 1차 감사(2010년)는 사업계획 자체가 적절하게 수립됐는지, 2차 감사(2012년)는 4대강 공사가 설계대로 이뤄졌는지, 3차 감사(2013년)는 4대강 사업 건설사들의 담합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4차 감사는 최초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경제성 분석을 망라하는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밝혀냈지만, 4대강 사업 추진을 직접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일부 쟁점에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놓지 못했다. '4대강 사업이 국민을 속이고 사실상 운하사업을 하려 한 것인지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직권남용 등 위법성이 있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또, 정부와 건

설사 간의 이면거래 여부, 4대강 '녹조 라떼'가 대규모 보(水) 설치 때문인지 등의 쟁점도 해소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무는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이 이에 접촉 자체를 거부했고, 강제수사 방법이 없어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민간 건설사는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자진해서) '정와대와 이면거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긴 어렵지 않으나"고 설명했다.

이울러 조류농도 등 4대강 수질변화 원인 분석은 필요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집행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2008년 금융위기로 민자유치가 어려워져, 한국수자원공사가 2조8000억원을 먼저 투자하면 국고로 보전해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09년 정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수공이 8조원의 채권을 발행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했고, 8조원 중 4조1000억원을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청에 위탁집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2015년 투자원금의 30%(2조4000억원)와 금융비용만 지원하기로 결정, 수공은 4조원

을 손실처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과정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공기업의 국책사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와 범위, 재원분담 원칙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손실이 발생한다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당시 수공의 결정을 배임으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울러 국토부는 당초 4대강 사업을 2012년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2011년으로 1년 앞당기면서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수 이용현황을 일부 누락하거나 하도 준설에 대한 지수 경제성 분석을 건너뛰었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이 조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 특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검토의견을 내기 전 결과를 사전인수해 '조류농도 예측 필요' 등 보완이 어렵거나 부정적 의견을 삭제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3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사업'을 추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4대강 준설, 보 건설 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했다. /연합뉴스

조선대 미술대 초석 다진 '추상의 대가'



김은영의 '그림 생각'

(230) 조선대와 백영수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은 우리나라 미술대학 가운데 역사와 전통이 가장 깊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우리나라 최초로 미술대학이 설립되어 오지호 김보현 임익순 등 기라성 같은 대가들이 수많은 미술인재들을 길러냈는데, 해방 직후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일본 유학생들을 보육했고 실제 이들을 주축으로 새로운 근대 및 현대미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조선대 미술대 창립의 기초를 다졌던 백영수 화백(1922~2018)의

부음을 접하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문 미술대학으로 꼽혔던 시절의 명성을 다시 새겨본다. 지금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도 예술에 대한 열망으로 미술대학 지원자가 많았던데 비해 최근엔 '밥벌이'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예능계 전공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 걱�택감도 없지 않다.

백영수화백은 김환기, 이중섭, 유영국, 장욱진 등과 함께 한국 최초 추상미술 그룹인 '신사실파(新寫實派)' 동인으로 활동했고 전통적인 소재와 사실성의 바탕 위에 추상성과 현대적인 감각의 조형체계를 일구어 왔다. '모자상의 작가'로 알려져 있는 화백의 '창가의 모자'(2012년 작) 역시 눈을 감고 꿈꾸는 듯한 모자의 이미지를 통해 인간사회의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과 행복의 순간을 보여주면서 그림을 감상하는 이의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있는 것 같다. 아동화를 연상시키는 화백의 '모자상'은 수순을 넘긴 나이에도 천진무구한 어린이의 시



백영수 작 '창가의 모자'

적 감성을 지녔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1977년 이후 35년 동안 파리에 체류하며 유럽에서 100여회 전시회를 열었으며 2011년 영구 귀국한 화백은 2012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무각사와 공동 주최로 대대적인 회고전을 갖기도 했다. "먼 먼 여행을 거쳐 고향의 품에 돌아온 기분"이라며 행복해하던 노화백의 모습 또한 미술사의 한 장면으로 기억될 것 같다.

<광주비인날레 정향희 화실장·미술사부사>

2018년 무안공항 직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푸~우~욱~

일본 기타큐슈, 오사카, 러시아, 세부, 북해도, 다낭, 방콕, 대만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5월 27일 이후[화(4일), 금(3일), 일(3일)] 정기편 확정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정기편 확정 기간 한정 특가(6/5~7/20) -

- ◆ 기타큐슈 에어텔 3일 299,000원
- ◆ 기타큐슈, 삿부, 유후인 3일 [실속] 399,000원~ / [폭격] 499,000원~
- ◆ 기타큐슈, 삿부, 유후인 4일 [실속] 559,000원~ / [폭격] 599,000원~
- ◆ 기타큐슈 아마구치 3일 [폭격] 549,000원~ ※ 불포함사항: 무안공항 승수 및 기사/가이드 경비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 세미패키지 실속, 무안 출발/오전출발 •

- ◆ 오사카, 나라, 교토 실속(세미더블) 699,000원~
-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4일 949,000원~

무안 ↔ 토토리(요나고) 직항 전세기

7월 27일 부터(총5회)[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 2박3일 699,000원(ALL 포함) ◆ 3박4일 799,000원(ALL 포함)
- ◆ 추석 연휴 스케줄(9/22, 23, 24, 25~) 2박3일 998,000원(ALL 포함)

휴일 연휴 가질, 연인과 함께~ 무안 ↔ 마쓰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모미치 & 알펜루트 & 마쓰모토 관광

9월 23일 부터(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 2박3일 1,048,000원~ ◆ 3박4일 1,198,000원~

무안 ↔ 북해도 전세기 취항!! 7/18부터 ~ 8/21까지 총 19회

7월 18, 21, 24, 25, 27, 28, 30, 31 **8월** 2, 3, 5, 6, 8, 9, 11, 12, 14, 17

[폭격] 준특급+특급 1,290,000원 [고폭격] 특급 1,450,000원
[골프] 특급 1,790,000원 ※ 국경수기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무안 ↔ 블라디/하바롭 전세기 취항!! 7/11부터 ~ 8/16까지 총 10회

[알뜰] 3성급 1,090,000원~ [실속] 5성급+3성급 1,190,000원~
[폭격] 5성급 1,350,000원~

무안 ↔ 세부 직항 전세기 [팬퍼시픽 연합]

6월 30일 출발 부터(수(3박4일) / 토(4박5일))

- ◆ 세부 정통 패키지 (3박4일) 599,000원~ / (4박5일) 649,000원~

※ 팬퍼시픽항공 왕복항공권 - 음력 서비스 / 기내 담요 서비스 • 일급 / 준특급 / 특급 리프트 3박(2인실 기준), 1인실 여행자보험 • 특식 2회, 리프트식 3회, 코코넛 오일(드라이 프랑) & 코코넛 비누 1SET(포장) • 필리핀 현지 공항세(700세타/인원당) 포함 • 호텔(1인실) 무료강습, 라우리부 디스카버리투어, 민속공연 관람, 마사지 • 시내관광(아열대의 심장), 산책로(요세 또는 마탄성당, 마탄수리안 등) • \$80 상당의 아일랜드 호텔투어(세부드 중식) 포함 ※ 출발 날짜별로 요금 및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 바랍니다.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7월 27일 부터(일, 월 출발)

- ◆ 대만, 화롄, 지우펀, 야류, 서문정 3박4일 799,000원~
- ◆ 대만, 서문정, 지우펀, 야류 2박3일 629,000원~

광주 → 제주도 ◆ 2박3일(주중) 249,000원~, 2박3일(주말) 324,000원~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 · 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무안 ↔ 다낭 직항 전세기

5월 18일(금) 이후 [화(3박4일), 금(3박5일)] 푸우욱~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내담요, 배개, 비디오 상영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599,000원~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76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79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969,000원~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5월 2일 부터(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 [준특급] 649,000원~ ◆ [특급] 699,000원~

남만이 넘치는 지중해 크루즈 10일
(이탈리아,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 광주 출/도착, ALL포함 4,600,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휴조건: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지보통 기내(여행비용: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법(항공권, 공항 및 부수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경비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주소, 규정) 및 일정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업등록, 기사/가이드 명세서, 선택관광, 각각 비자(방문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황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